

KMI

북한해양수산리뷰

2026년
3월호

발간년월 2026년 3월 31일

발행인 조정희 원장

총괄 윤인주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자료문의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정다현 연구원

TEL +82-51-797-4747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기획 칼럼

3

북한 제9차 당 대회와 해양수산 분야 전망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동향 분석

13

북한 연안 블루카본, 기후 재원으로 이어진다면

엄단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연구 동향

18

북한의 북극항로 인식 및 연계 전략 연구

정다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북한 알기

20

조개양식 서사에 나타난 실리 추구의 긴장과 조화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선 해양도시 : 포기되지 않는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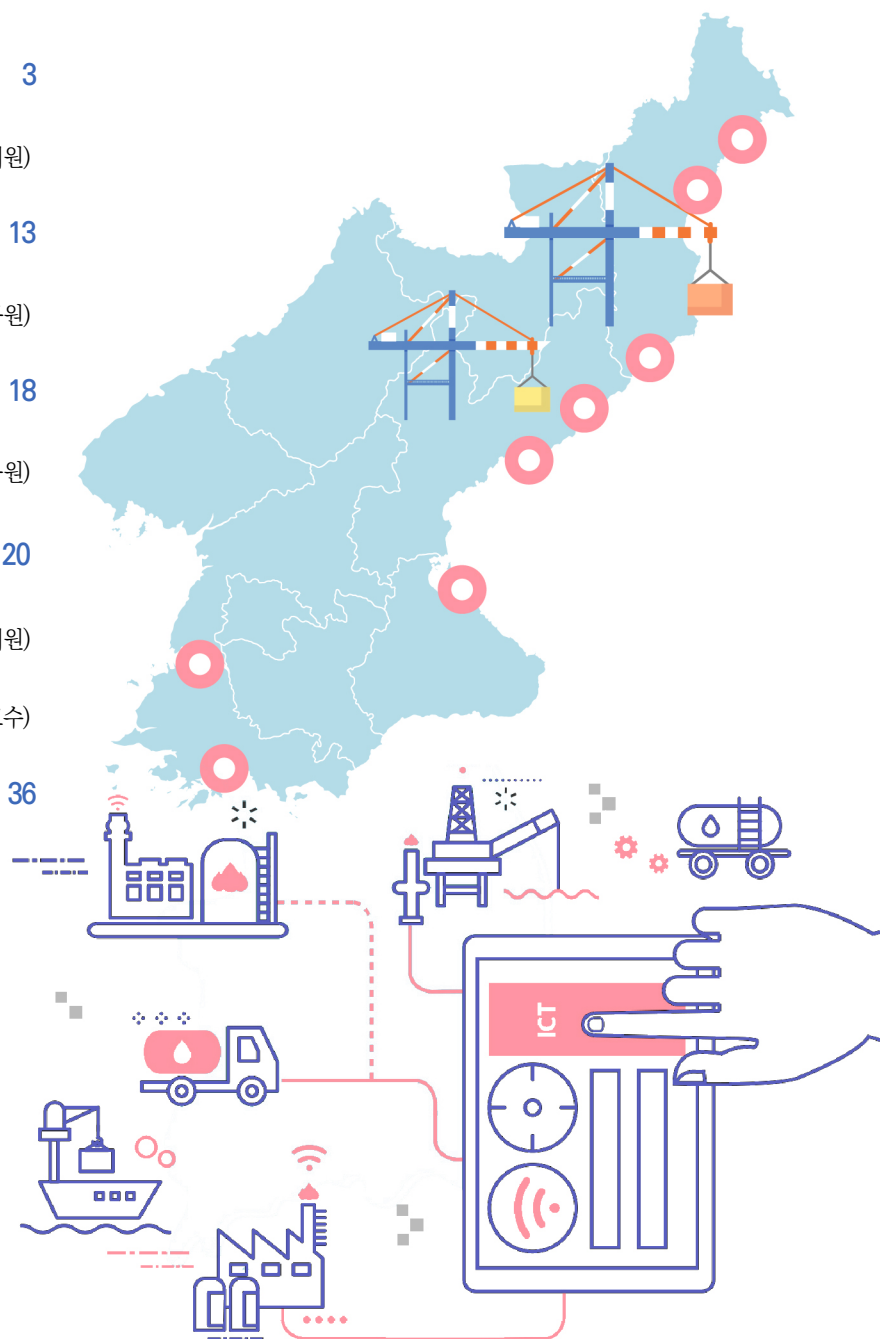
강채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북한 소식

36

북한 언론 보도 (1~3월)

NK news 보도 (1~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정다현 연구원 Tel_051-797-4747, E-mail_dhj82@kmi.re.kr

이번 호 소개

2026년 3월호 KMI 북한해양수산리뷰는 제9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 방향과 현안을 짚고, 기후·물류·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한다. 이번 호는 기획칼럼 1편, 동향분석 1편, 연구 동향 1편, 북한 알기 2편, 그리고 북한 최근 보도 정리로 구성하였다.

먼저, 기획 칼럼에서 윤인주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6년 2월 19~25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9차 당 대회의 핵심 의제와 새 5개년 계획(2026~2030) 기초를 토대로, 해양수산 분야의 방향을 ‘양어·양식 확대’와 ‘가공·유통 기반 강화’, ‘어선·어구 현대화’ 등으로 정리한다. 아울러 북한 수산물 생산이 2016년 100만 톤(최고치)→2021년 36만 톤(감소)→2023년 75만 톤(회복)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제시하며, 생산 확대가 구조적으로 직면한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동향 분석에서 엄단비 전문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북한 연안 생태계, 특히 서해 갯벌(1998년 기준 약 3,000km² 추정)이 갖는 블루카본 잠재력에 주목하고, 국제사회에서 구체화되는 해양 기반 기후자원 논의 속에서 북한 연안 생태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한다. 람사르 협약·EAAFP 참여 등의 흐름을 함께 언급하며, 여건 제약이 큰 상황에서도 기초조사-측정·보고·검증(MRV)-탄소시장 연계로 이어지는 자원 설계 논의를 선제적으로 추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 동향에서는 정다현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26년 2월 24일 개최된 「KMI 한반도 이해 콜로키움」의 발표주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북극항로 인식과 철도 연계 전략(Sea & Rail) 논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북한의 담론·프레임과 연계 운송의 운영·전략 모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북한 알기에서는 이지순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조개양식을 소재로 한 북한 문학 서사를 분석해, 기술적 위기·합영(협력) 논의·원산지 표기 등 장면 속에 드러난 ‘실리 추구’와 ‘체제 가치/자립’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읽어낸다. 또한 강채연 교수(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는 ‘나선 해양도시’라는 주제를 통해, 경계성과 공간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조망한다.

북한 소식에서는 매체 및 NK News 분석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보도된 북한의 해양·수산·해운·항만 관련 기사를 종합 정리하였다.

이번 3월호는 당 대회 이후 정책 기초(기획 칼럼), 연안 생태·기후자원(동향 분석), 북극항로·철도 연계(연구 동향), 문화 서사와 도시·공간(북한 알기), 보도 모니터링(북한 소식)을 담았다. 북한 해양수산 분야를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획 칼럼

북한 제9차 당 대회와 해양수산 분야 전망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mouthpiece@kmi.re.kr

1. 들어가며

1) 제9차 당 대회 개최 개요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열렸다. 북한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제계획 등을 발표하는 당 대회는 1980년 제6차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5년 만인 2016년(제7차)에 36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5년 만이며, 집권 기간 내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지난 5년간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 보고,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세 가지 의정을 놓고 결정서를 채택했다.

2) 사업총화 보고 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는 ▲ 지난 5년간의 성과, ▲ 부강발전과 민생 복리, ▲ 대외관계의 확대 강화, ▲ 당 건설과 당 사업의 심화 발전을 요지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지난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북한식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에 새로운 길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생산력 개선, 과학기술력 강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게 된 동기와 목적, 지난 2년간 이룩한 성과를 강조했다. 지방공업공장을 새롭고 선진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시작된 지방발전정책은 과학, 보건, 문화를 아우르며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방향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 위기와 재해위기 극복을 위해 전 사회적으로 재해방지사업에 힘썼고,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강화하여 경제 전반을 통일적으로 관

기획 칼럼

리·운영하는 사업체계와 질서가 확립되었으며, 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달성하는 등 5개년 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음을 밝혔다.

한 마디로 “지난 30여 년간 경제 분야에서 처음으로 가장 뚜렷하고 의의 있는 성과를 통해 향후 경제발전 전망을 낙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 성과는 평양시 5만 세대 주택, 삼지연시 농촌마을 현대화, 11만여 세대 농촌주택, 검덕지구·평안북도·자강도·양강도 수해 지역 수만 세대 살림집, 명사십리(강원도 원산시)와 온포온천지대(함경북도 경성군) 관광지와 휴양소, 평양종합병원, 연포·강동·신의주 지구 대규모 온실농장 등의 건설사업이다.

이러한 평가는 지난 3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발언을 통해 재확인된다. 김 위원장은 경제 분야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년간의 발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것과 수도와 지방을 아울러 전국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민생 정책을 늘린 것, 전반적인 기술 개건 사업의 성공적 개시와 과학기술과 교육, 보건사업의 진일보를 언급했다.¹⁾

3) 해양수산 분야 전망 필요성

당 대회는 그 성격상 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결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당 대회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경제 여건 평가와 정세 인식에 대한 종합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식량 문제 해소, 지방경제 발전, 관광 등의 대외 정책 변화 측면에서 해양수산 분야 방향을 점검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며 전망할 필요가 있다.

2. 경제 부문별 전략 및 해양수산 분야 방향

1) 새로운 5개년 계획 핵심 목표

북한이 밝힌 제9차 당 대회의 기본 과업은 지난 5년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민생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당의 의도는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기획 칼럼

을 “안전 공고화 단계, 점진적인 질적 발전 단계”로 만든다는 것이다.²⁾ 향후 5년을 “새 시대 지방발전정책”·“농촌혁명강령” 등 “중장기 계획을 본격 진척시킬 중대 시기”로 규정하고 계획 수립 과학화 및 지도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³⁾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혁신하고 기간 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져야 한다며 경공업, 수산업, 농축산업, 건설, 지방발전, 국토관리, 과학기술, 정보산업, 대외무역, 관광 등을 주요 분야로 언급했다.

이번 당 대회에 채택된 결정서는 당내에서 출판하여 각급 당 조직에 배포될 예정이다.⁴⁾ 여기에는 정치국 회의를 통해 확정된 금속·화학·전력·기계 등 20개 주요 부문별 5개년 계획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분야별 주요 과업은 아래 표와 같다. 세부 내용은 향후 이어지는 행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6~2030) 분야별 주요 과업

분야	주요 과업
경공업	소비품 생산 증대(교복, 가방, 신발)
수산업	양어와 양식을 기본 방향, 대대적으로 확대
농축산업	알곡 생산구조 변경, 밀 가공 능력 확장, 알곡 생산 증대, 남새 온실농장 건설, 축산(‘5대고리’ 등), 관개 체계 완비, 간척지 개간 목표 점령, 토지정리, 농기계 혁명 등
건설	화성지구 2년간 행정구역 표본으로 전변, 도 소재지 연차별 개편
지방발전	매해 20개 시·군 지방공업공장·병원·종합 봉사소 건설, 연초 착공·연말 준공
국토관리	도시경영사업 개선, 재해 위기 준비 대응, 생태 보호 감시·통제
과학기술	에너지산업, 우주산업,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산업,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타	정보산업 “또 한번 진보”, 대외무역 “활발 전개”, 관광업 “새로운 산업”

[출처]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6.2.26; 통일부 정세분석국, “북한 제9차 당대회 관련”, 2026.2.27.

기획 칼럼

2) 해양수산 분야의 전략적 지위와 역할

당 대회 폐막 후 약 한 달 후인 3월 23일 최고민인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속·화학·전력·석탄 부문에 이어 ▲건설·철도운수·정보산업 부문을 언급한 다음, 주민 생활과 직결된 ▲농업·수산업·경공업 발전에 지속적인 힘을 넣을 것을 주문했다.⁵⁾

2026년 초 북한 언론보도에서 해양수산 분야 내용은 대다수 수산업인데 어선어업 등 생산과 직접 관련한 기사는 거의 없다. 과거에는 12월~1월이 동해 한류성 어종의 성어기이므로 동해 어선어업 관련 보도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몇 년간 보도 빈도가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다.⁶⁾ 대신 원산어구 종합공장, 직하대서양연어 종어장(함경북도 청진시),⁷⁾ 웅진서해바다양어 사업소 조기종어장, 염분진해안공원지구(함경북도 경성군), 한천수산사업소 젓갈가공장(평안남도 평원군) 준공 등의 보도가 있다. 어선어업보다는 어구, 종묘장, 젓갈 가공장 등 지방발전과 민생에 기여하는 생산 시설에 대한 보도 위주이다.

2024~2025년에 걸쳐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바닷가 시·군의 모범으로 신포시와 낙원군이 선정된 바 있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는 원산수산대학과 수산연구원이 개발한 가리비(밥조개) 종자생산기술을 도입하였고, 낙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준공 후 첫째 개조개(만밥조개)와 미역 수백 톤을 수확하였다.⁸⁾ 북한 당국은 이를 해안(연선지역) 시·군에서 수산업을 발전시켜 지방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거로 삼고 있다.⁹⁾

그런 점에서 2월에는 2014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1월8일수산사업소”와 “물고기수송차”에 관한 보도가 반복된 것이 주목된다. 이 수산사업소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 등에 매일 같이 수산물을 공급하는 곳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생일을 붙여 이름한 최고사령부 직속 수산사업소로 불린다.¹⁰⁾

물고기수송차는 매월 1만 리(4천 km)를 운행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쉬지 않았다고 한다.¹¹⁾ 실제로 한 달에 4천 km를 달린다면 하루 주행 거

기획 칼럼

리가 133km로 서울-대전(약 140~150km) 구간을 매일 운행하는 것이다. 이 수송차는 인당 300~400g의 수산물을 공급한다고 한다.¹²⁾ 최근 언론보도는 10여 년 전에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방발전과 민생에 기여하는 수산사업소의 선도적 역할이 한층 강조될 것을 예고한다.

3) 새 5개년 계획의 해양수산 분야 방향

제9차 당 대회에서 수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은 양어와 양식이며 이를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전국의 도 소재지들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혁신하는 사업과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내 지방발전과 농촌건설을 강조함에 따라 바닷가 지역 수산사업소와 양식사업소를 통한 양어와 양식에서 증산 경쟁을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기 지역의 특성과 경제적 잠재력에 맞게 생산지표를 여러 가지로 정하여야 한다”며 “바다를 낀 시, 군에서는 다시마 가공품을 비롯한 수산물가공품들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방발전 정책 집행의 예시를 든 바 있다.¹³⁾ 시정연설에서는 수산 부문에서 현대적인 어선을 많이 만들어 내고, 어로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¹⁴⁾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선의 현대화, 어로의 과학화, 수산물 가공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2024년 시작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신포시와 낙원군에 이어 더 많은 연안 시·군에서 양어·양식·가공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5개년 계획을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 움직임은 3월부터 벌써 보도되고 있다. 어선 간 경쟁을 통해 주요 어장에 신속하게 들어가 선진적인 어로 방법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낸 이원수산업소, 김책수산업소, 청진수산업소에서 선박 수리와 어구 정비를 하고 있다.¹⁵⁾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인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와 낙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는 날씨 조건과 생육 조건에 따르는 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¹⁶⁾ 어구 능력을 높이고 양어와 양식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문제도 적극 토의하고 있다.¹⁷⁾

기획 칼럼

해운·항만과 관련해서는 화물수송조직과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물동량을 수송하는 문제가 철도운수 및 육해운 부문에서 토의되고 있다.¹⁸⁾ 농업 부문의 간석지 개간 목표 점령은 갯벌로 불리는 연안습지를 간척하는 사업이므로 해양환경 및 넓게는 국토관리에 해당하는 과업이다.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대책과 국토보호 및 생태환경 개선, 도·시·군 소재지의 도시경영사업 혁신이 재해방지,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 부문에서 논의 중이다.¹⁹⁾

3. 해양수산 분야 추진 필요 과제

북한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마주한 현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외환경 변화는 크지만 그만큼 대내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수산물 생산량 확대는 북한이 강조해 온대로 어선·어구 현대화라는 물질적 토대와 양어·양식 과학화에 달려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현대화·과학화 주문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생산량이 더 이상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이다(2016년 1백만 톤이 최고치, 2021년 36만 톤까지 감소, 2023년 75만 톤까지 회복).²⁰⁾ 게다가 과거에는 수산물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2016년 이후 대북제재 강화로 수산물을 생산하더라도 내부에서 모두 소비해야 하므로 이제는 수산물 가공을 강조하고 있다.

어선·어구 현대화를 위한 노후 선박 교체와 첨단 어군 탐지 장비 보급, 양어·양식 과학화를 통한 내수면과 해면 양식의 규모화·집약화, 수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가공시설 확충은 기본적인 과제이다. 특히 어로어업을 통한 생산량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본·기술·노동을 집약한 어류 양식 발전이 최대 과제이다. 수산물 생산은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어장 환경 보호 등 해양환경 변화와도 일맥상통한다. 북한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가장 희망할 것으로 보이는 관광 발전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러시아인과 다음 잠재 고객인 중국인 외에 새로운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기획 칼럼

<표 2> 해양수산 부문별 추진 필요 과제

과제	설명
어선·어구 현대화	노후 선박 교체, 첨단 어군 탐지 장비 보급 등
양어·양식 과학화	내수면 및 바다 양식의 규모화·집약화
수산물 가공 활성화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확충
해양환경·연안관리 강화	생태계 기반 간석지 관리, 연안 재해 대응 역량 강화
해운·항만 인프라 개선	무역항 현대화, 대외무역 활성화
해양관광	러시아·중국인 외 추가 수요 창출

[출처] 저자 작성

4. 향후 전망 및 대북정책 시사점

1)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른 정책 가변성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친분을 염두에 두고 북·미 간의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을 공격하면서 대내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은 북·미관계 전망이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평화적 공존 또는 영원한 대결 모두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²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종료를 약속한 대로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란과의 전쟁을 확산시켰다. 이 상황이 얼마간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반도에서 또 다른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양측 모두 바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전략상 유럽과 중동의 긴장이 진정된 전후로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은 이에 화답할 가능성이 높다.

2) 남북 및 국제협력 가능성

문제는 남북관계이다. 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평화수호 의지와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한편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다.²²⁾ 이처럼 북한이 한국

을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을 천명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만약 북·미관계가 개선된다면 미국은 관계 개선에 동반되는 협력 의제에 일본과 한국을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한 바 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²³⁾ 북한 당국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면 논평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 부장은 일본 총리가 평양에 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김 부장은 북·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결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했다. 두 정상이 만나려면 일본이 시대착오적 관행에서 결별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일 정상회담을 고려할 생각이 있고, 그 조건을 제시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순서는 달라질 수 있으나 북·미관계 개선은 북·일관계, 더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까지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적어도 미국, 일본, 한국이 동참하는 국제 협력 가능성은 기대해 볼만하다.

3) 해양수산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북한이 한국을 계속해서 “적대적 국가”로 대한다면 대북정책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것 말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적어도 모니터링만이라도 놓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산 분야에서 어로와 양식, 가공과 유통을, 해운·항만 분야에서 상선대와 항만 동향을, 해양환경 분야에서 간석지와 연안 재해 동향을, 해양관광 분야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는 통일 대비 및 남북 협력을 포괄하는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근거 자료이다.

만약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열린다면 가장 먼저 해양관광 수요 창출 협력이 논의될 것이다. 북한의 새 5년 계획이 관광에 주목하고 있고 관계 개선 초기에는 인적 교류로 시작하는 것이 용이하다. 남북한 당국만이 아니라 현대아산이라는 민간 기업이 매개 및 중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

구를 북한 주민이나 러시아·중국인 관광만으로 활성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관광 주 무대를 원산으로 이전·확장하여 금강산·원산을 연계하고 국제협력과 연동시킨 한반도 관광으로 확장하는 것이 초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은 분야 자체가 대북제재를 받고 있어 북한 내수 식량 공급 차원의 해면 어류 양식과 수산물 가공 기술 지원 등이 협력 의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해면에서 어류를 양식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한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난화 및 양식 어장 복상에 따른 수산물 공급 차질에 대비해야 하므로 상호 수요가 충족되는 부분이 있다. 어선·어구 및 해운·항만 인프라 개선은 대북제재 완화 및 면제 등이 필요하다. 간석지 관리 및 연안 재해 대응은 국토지리정보가 관련되어 북한 측에서 남북협력보다는 국제 협력 의제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3월 23일부터는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 1 5 기 제 1 차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부문위원회(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경제발전 5 개년 계획의 수행,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예산 등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 5 기 제 1 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노동신문』, 2026.3.24.
- 2) “당 제 9 차대회가 제시한 사상과 과업을 깊이 체득하자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 『노동신문』, 2026.3.3.
- 3) 통일부 정세분석국, “북한 제 9 차 당대회 관련”, 2026.2.27.
- 4) 경제발전 5 개년 계획의 지표별 목표를 언급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을 제기했으며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가 2 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대회 마지막 날인 7 일 차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불굴의 개혁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6.2.26.
- 5)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 5 기 제 1 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노동신문』, 2026.3.26.
- 6) 특이한 점으로 황해남도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 풍력)으로 전력 문제를 자체 해결했다는 기사가 세 꼭지에 걸쳐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다(1월 12일). 진희권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편집위원, 수산/어촌) 자문 의견
- 7) 북한어로 종어장은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양어장이나 강 같은 데에서 양어할 새끼 물고기를 마련하는 곳이나 기관”을 뜻하며, 남한어의 종묘장에 해당
- 8) “우리 식의 밥조개종자생산기술 확립”, 『노동신문』, 2025.12.29.; “락원포에 펼쳐진 흐뭇한 작황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준공후 수백t의 만밥조개와 미역 수확”, 『노동신문』, 2026.3.1.
- 9) “락원포에 펼쳐진 흐뭇한 작황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준공후 수백t의 만밥조개와 미역 수확”, 『노동신문』, 2026.3.1.
- 10) “최고사령부직속 수산사업소”, 『노동신문』, 2025.6.25.
- 11) “사랑을 싣고 달리는 수백리 운행길 1 월 8 일수산사업소 물고기수송차를 타고”, 『노동신문』, 2026.2.5.; “물고기수송차”, 『노동신문』, 2026.2.24.
- 12) “밝게 웃어라”, 『노동신문』, 2019.12.16.; “류다른 수송길”, 『노동신문』, 2020.3.14.
- 13) “생산지표도 관심해주시며”, 『노동신문』, 2026.3.10.; “인민을 매혹시키는 위인의 세계 기쁨속에 돌아보신 생산공정”, 『노동신문』, 2026.3.4.
- 1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 5 기 제 1 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노동신문』, 2026.3.26.

- 15) “상원의 투쟁기풍으로 계속혁신, 계속 전진해나가는 총진군대오의 드세찬 기상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에서 2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에 총결기”, 『노동신문』, 2026.3.5.
- 16) “영광의 당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목표수행에 총결기, 총매진하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결기모임 여러 부문과 단위에서 진행”, 『노동신문』, 2026.3.11.
- 17)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조직사업 적극화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에서”, 『노동신문』, 2026.3.11.
- 18) 위 기사
- 19) “수산물가공기지가 새로 건설된다 신포시에서”, 『노동신문』, 2026.3.14.
- 20) 북한 어업 및 양식 생산량,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do?num=22&listNm=%EB%86%8D%EB%A6%BC%EC%88%98%EC%82%B0%EC%97%85&menuId=M_01_02(검색일: 2026.3.24.)
- 21)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2026.2.26.
- 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노동신문』, 2026.3.26.
- 23) “일본 수상이 조일수뇌회담에 대한 의욕을 표시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 2026.3.23.

동향 분석

북한 연안 블루카본, 기후 재원으로 이어진다면

엄단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dbu@kmi.re.kr

1. 들어가며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0)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브라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강철민 참사관이 북한을 대표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막 총회 생중계에서도 방청석에 북한 인사로 보이는 두 명의 모습이 확인됐다.¹⁾

북한이 국제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연안 생태계의 잠재력에 대한 재조명을 가능하게 한다. 북한 서해안에는 남한보다 넓은 규모의 갯벌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블루카본 생태계에 해당한다. 최근 연안 생태계에 저장되는 탄소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연안 생태계 역시 관련 논의 속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갯벌과 블루카본

블루카본은 갯벌·염습지·맹그로브·해초대 같은 연안 생태계에 저장되는 탄소를 의미한다. 블루카본이 있는 연안 생태계는 열대우림보다 탄소 고정량이 약 4배 높고, 온실가스 흡수 속도는 약 50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2013년에 맹그로브·염습지·잘피를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에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공식 포함시킨 데 이어, 작년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IPCC 총회에서는 한국 주도로 의제화한 갯벌·해조류·조하대 퇴적물을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포함하는 방법론 보고서 개요가 승인됐다.³⁾

동향 분석

북한의 갯벌 면적은 1998년 기준 약 3,000km²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시기 우리의 서해안 갯벌(2,393km²)을 웃도는 규모다.⁴⁾ 향후 유기 탄소 함량과 퇴적 특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블루카본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갯벌과 염습지가 남북 공동의 탄소흡수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적 가치도 크다.

북한은 블루카본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지만, 갯벌과 연안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제 규범 체계 안에서 보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문덕·라선 습지의 람사르 등록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습지목록' 책자를 발행해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부대행사에서 공개한 것이 그 예다.⁵⁾ 습지의 위치, 생태계 기능 정보까지 직접 공개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에 파트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⁶⁾

해양 생태계 보전은 정치적 민감도가 낮은 분야로, 다른 남북협력 의제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블루카본은 남북이 함께 청색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된다. 만약 북한 연안에서 블루카본 사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

3. 북한의 블루카본 사업과 자원 이야기

블루카본 사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기초조사에서 전 과정을 완주하려면 수십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자원의 성격도 다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사업 주기를 고려할 때 단계별 자원 조달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일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⁷⁾ 북한이라는 조건을 대입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현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인해 일반적인 국제기구의 지원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오히려 단계별 기후자원 조달 방안을 사전에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동향 분석

북한 블루카본 사업 추진을 가정해보고, 단계별로 어떤 기후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는 기초 조사 단계이다. 블루카본 사업의 출발점은 연안 생태계 분포 현황과 탄소 저장 능력 등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수익이 없는 단계인 만큼 민간 자본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재원이 선제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재원으로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가 ‘환경·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지원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될 수 있다.⁸⁾

두 번째 단계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로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 계획과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제재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일반적인 국제기구 채널은 활용하기 어렵다. 이 구조적 제약을 감안하면 한국 주도의 신탁기금과 같은 별도의 대한민국 주도 재원 플랫폼을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생태 복원 및 조성 단계이다. 훼손된 갯벌과 연안 생태계를 실제로 복원하는 단계로 향후 북한의 IFIs 가입과 안보리 제재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단계에 혼합금융 재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벨리즈 턴에프 환초 해양보호구역 프로젝트(Belize Turneffe Atoll Marine Reserve)와 같이 국제기구의 보조금과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결합하고, 민간이 해양보호구역의 공동운영권을 위탁받아 수익화 가능한 사업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⁹⁾ 벨리즈 사례는 정치·시장 리스크가 있는 환경에서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달성한 사례로 남북 블루카본 사례에서도 참고가 가능하다.

네 번째 단계는 측정·보고·검증(MRV)과 국제 인증 단계이다. 어떤 탄소사업이든 탄소감축분을 국제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려면 MRV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북한 지역은 기존 블루카본 데이터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이 네 번째 단계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은 사업 심사 시 MRV 체계의 신뢰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 만큼, 관련 비용은 GCF 또는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과 같은 국제기금을 통해 확보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⁵⁾

네 번째 단계까지 달성했다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탄소시장 연계와 수

동향 분석

익 순환의 단계이다. 복원된 블루카본 생태계의 탄소흡수 실적을 국제 탄소시장에 연결하고, 수익을 다시 초기 단계로 재투자하는 순환형 구조를 만드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 재원의 비중이 줄고 민간 펀드와 성과 연계 재원이 주를 이루게 된다. <[표-1] 참고>

[표-1] 블루카본 단계별 주요 기후재원 및 적용 방향

단계	재원 성격	활용 내용
기초 조사 및 타당성 분석	공공재원	연안생태 DB 구축, 탄소흡수량 조사, 정책·법제 검토
사업계획 수립	공공·국제혼합 재원	제도 정비, 자금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생태복원 및 조성	혼합금융 (Blended Finance)	갯벌·염습지 복원,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공공보조금 + 민간투자 결합으로 복원사업 리스크 완화
MRV 및 국제 인증	국제기후기금	탄소흡수량 측정·검증 체계 구축 국제 표준(IPCC) 기반 DB 및 인증체계 설계
탄소시장 연계 및 수익 순환	시장 기반 민간 재원	탄소배출권 발행·거래, 성과연계 재원(Result-based Finance) 수익 재투자 및 지역 커뮤니티 환원 구조 마련

[출처] 윤인주 외(2025), 통일미래 한반도 청색경제 비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한 연안 생태계의 블루카본과 기후재원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과 향후 가능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북한이 보유한 갯벌은 아직 국가 기후전략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블루카본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은 적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는 해양 기반 기후재원 논의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으며, 북한도 그 흐름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람사르 협약 가입, EAAFP 참여,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등 연안습지 관련 국제규범 체계에 꾸준히 참여해 온 행보가 그 근거다.

물론 현장 접근, 제도적 여건, 국제 재원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은 아직 요원하다. 블루카본 사업이 기초조사에서 탄소시장 연계까지 이어지려면 긴 시간과 단계별 재원 설계가 필요하며, 북한이라는 특수한 조건은 그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를 미리 축적해 두는 것은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에 실질적인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갯벌의 탄소저장 잠재력이 언젠가 한반도 공동의 기후재원으로 이어지는 날을 기대하며, 그 준비의 한 부분으로 본고가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동향 분석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며, 윤인주 외(2025) 『통일미래 한반도 청색경제 비전』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1) NKnews(2025.11.), North Korean diplomats join COP30 climate change summit in Brazil, <https://www.nknews.org/2025/11/north-korean-diplomats-join-cop30-climate-change-summit-in-brazil/>(검색일: 2026.3.24.)
- 2) Howard, J., Sutton-Grier, A., Herr, D., Kleypas, J., Landis, E., McLeod, E., Pidgeon, E., & Simpson, S.(2014), Coastal blue carbon: methods for assessing carbon stocks and emissions factors in mangroves, tidal salt marshes, and seagrasses, Conservation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3) IPCC(2014), 2013 Supplement to the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Wetlands, IPCC; IPCC(2025), Report of the Sixty-Third Session of the IPCC (Lima, Peru, 8–12 October 2025), IPCC.
- 4) 해양환경정보포털, 세계주요갯벌 및 한국의 갯벌현황, <https://www.meis.go.kr/mes/mudFlat/internalSituation/view1.do>(검색일: 2026.3.24.)
- 5)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Country-profil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ttps://www Ramsar.org/country-profil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검색일: 2026.3.24.)
- 6)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Activities undertaken to protect wetlands: the DPRK's commitment to conservation efforts in the East Asia–Australasian Flyway(검색일: 2026.3.21.)
- 7) World Bank(2024), Supporting Project Preparation to Structure Successful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A Primer, World Bank, <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099053124132550754/p1792711a64e3000c192d81d6c646824c90>(검색일: 2026.3.24.)
- 8)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은 제8조 기금의 용도에서 2호를 신설하여 “환경,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19946호, 2024.1.9.) 참조
- 9) Blue finance, Case Study: Blended Finance for Marine Protected Areas (MPAs), <http://blue-finance.org/>(검색일: 2026.3.24.)

연구 동향

북한의 북극·북극항로 인식 및 연계 전략 연구

정다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dhj82@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6년 2월 24일(화) 「한반도 이해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북한의 북극항로 관련 인식과 ▲철도 연계 전략에 대한 내부 이해도 제고 및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강태우 박사(한반도상생연구소)와 박정준 책임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아, 북한의 북극항로 담론과 Sea & Rail 복합운송 관점의 전략 구상을 제시하였다.

1. 북한의 북극항로에 대한 인식 분석(강태우 박사)

강태우 박사는 ‘북한의 북극항로에 대한 인식’을 북한 매체 담론의 장기 시계열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발표는 ‘북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북한 매체(예: 노동신문) 기사들을 확인 및 분류하고, 시기별·주제별로 북한의 북극 및 북극항로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정리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평화협력정책의 방향성 논의를 제안하였다.

특히 발표에서는 1945~2025년 기간의 기사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를 구분하고(예: 냉전기/북극 거버넌스 작동 시기/‘북극 예외주의’ 약화 국면 등), 시기별로 기사 주제가 어떤 비중으로 나타나는지 도표로 제시하였다. 냉전기에는 북극을 경제·물류 공간으로 직접 다루기보다 과학기술, 지리, 군사안보 관련 ‘정보 전달’ 및 체제 우월성 강조 방식으로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후 시기에는 북극 거버넌스 변화 및 강대국 경쟁 심화 맥락에서 군사안보 이슈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발표는 북극항로를 둘러싼 북한의 ‘관심’이 단선적인 경제 논리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안보 인식과 결합된 담론을 기반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향후 북한의 북극·북극항로 관련 메시지(매체 보도·정책 신호)를 해석할 때 시기별 프레임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동향 분석

2.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철도 연계 전략(박정준 책임연구원)

박정준 책임연구원은 북극 해빙 변화로 북극항로(NSR)의 상업적 활용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해상로(NSR)와 대륙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한반도종단철도)의 연계를 Sea & Rail 복합운송체계로 설명하며, 물류 효율성과 공급망 회복탄력성 관점의 전략 구상을 제시하였다. 발표에서는 NSR-철도 연계의 시간·거리 단축 가능성과 함께, 계절적 제약을 전제로 한 운영 구상, 궤간 차이 등 기술·운영 병목과 이를 보완하는 기술(예: 궤간가변, 정온 물류 등)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북극 및 북극항로 인식과 관련하여, 공개 자료 기반 사례를 들어 북한의 북극항로 관련 활동·접근을 ‘간접 경험→부분적 참여→전략적 편입’의 단계로 설명하고, 나진항을 북극항로-대륙철도 연계의 거점 후보로 재조명하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나진항 활성화가 안보적 함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북극항로가 제재 회피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해양안보 관점의 문제 제기도 포함하였다.

이 발표는 북극항로의 ‘해상로’ 성격과 대륙철도의 ‘육상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1) 복합운송 모델의 구조, (2) 기술·운영 조건, (3) 주변국 전략 경쟁 및 안보 변수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KMI 한반도 이해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북한의 북극항로 인식에 대한 담론·프레임과 북극항로-철도 연계의 운영·전략 모델을 소개하였다. 두 발표는 북한의 북극항로 인식이 단순한 항로 관심이나 경제 논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보 인식·제재 환경·인프라·운영 조건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쪽은 북한 매체에 축적된 북극·북극항로 담론을 시계열로 정리해 인식 변화의 맥락을 제시했고, 다른 한쪽은 북극항로와 대륙철도 연계 가능성을 기술·운영 과제까지 포함해 검토함으로써 ‘전략’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을 구체화했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북한의 메시지와 전략 구상을 ‘담론-전략-운영 조건’의 틀에서 함께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북한의 북극·북극항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물류·해양안보 환경의 변화를 해석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알기

조개양식 서사에 나타난 실리 추구의 긴장과 조화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yjs1369@kinu.or.kr

1. 조개양식을 소재로 한 북한 소설

조선작가동맹 기관지 『조선문학』의 2024년 9호에 수록된 오광천의 <존엄>은 서해안 간석지 ‘○○수산물가공사업소’를 배경으로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체제 가치와 기술적 자립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조개를 키워 파는 경제적 이익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다가 양식업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인공 계현갑 지배인의 처사를 통해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10여 년간 공들였던 개량종 바스레기(바지락) 양식이 실패한 직후, 주변의 의혹과 비난 속에서도 외국 회사와의 맛조개양식 합영을 추진하는 과정은 북한이 직면한 기술적 과제와 이를 대하는 일꾼들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 선택의 기로에 선 조개양식의 길

사업소는 10여 년간 심혈을 기울인 개량종 바스레기 양식이 수백 톤의 새끼 조개 폐사 사고로 실패하면서 중대한 기술적 위기에 직면한다. “도 무역관 리국에서 무역지표로 선정한 맛조개(가리맛조개) 양식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회사와의 실무면담을 하려 한다는 소문이 쉬쉬” 돌았고, “국제시장에서 호경기를 맞고 있는 맛조개에 대한 양식광고가 그의 이런 변화를 몰아왔다”는 추측도 뒤를 이었다. 일부는 “새끼조개를 구입하여 들였던 자금이 얼마인줄 아오? 속빈 조개껍질을 파내서 그 많은 자금을 메꿀텐가?”라며 계현갑 지배인의 결정을 옹호했으나, 종업원들의 실망은 계속되었다. 급기야 바스레기 양식을 10년간 연구했던 동생 계윤갑이 떠나겠다고 말한다.

3년 전 윤갑은 성장 속도가 배나 빠른 개량종 바스레기를 육종했으나, 장기적인 사업에 많은 자금을 들여 “파악없는 종자,” 즉 검증되지 않는 종자를 받아들일 사업소를 찾을 수 없었다. 현갑은 지배인으로서 동생의 연구 성

북한 알기

과를 확인한 후에 윤갑의 바스레기를 받아들였다. 당시 사업소는 부두와 청사 건설을 추진 중이었고, 살림집 건설도 계획 중이라 자금이 여유가 없었으나 “개량 바스레기는 나라의 조개양식발전을 위해서 누구든지 꼭 성공시켜야 할 연구과제”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산사업소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 개량 바스레기를 배양하여 수백 정보의 간석지에 뿌렸으나, 수백 톤의 새끼조개가 모두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3. 무엇을 심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오해받는 신념

윤갑은 바스레기 규모를 줄이고, 외국 기업이 원하는 맛조개를 키우자는 제안을 받는다. 윤갑은 형이 “나라의 양식발전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자기 것을 사랑하고 자기 힘을 믿고 일어서서 이 땅을 빛내이려는 애국열”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자존심이란 꼬물만큼도 없이 남에게 의존해서라도 서퍽어치의 리윤을 보려는 녀도 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주변의 실망에 현갑은 자신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농사에서 대풍을 안아오자면 종자선정을 잘해야 하는 거요. 바다농사도 마찬가지요. 어떤 종자를 선택하여 양식장에 뿌리는가. 바스레기나 맛은 다 우리 사업소 앞바다생육조건에 적합한 조개들이요. 하지만 수요와 가격에 있어서, 면적당 수확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오. 그래 어느 종자를 심어야 더 큰 리익을 얻겠소?

<그림 1> 자력갱생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가마포 수산사업소에서 ‘씨조개’ 뿌리는 모습



출처: 『로동신문』 2020.6.5.

북한 알기

현갑의 발언은 단순히 조개 종류를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라, 조개양식에서 종자 선택이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드러낸다. 그는 바스레기와 맛조개 모두 사업소 바다의 생육 조건에는 적합하지만, 시장 수요와 수확량을 고려할 때 맛조개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전략적 전환을 선택한다. 이는 손실을 만회하고 사업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영자의 판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배인이 자존심도 없이 돈만 밝힌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나, 결과적으로 합병은 첨단 양식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림 2> 가마포 수산사업소에서 바스레기, 가막조개, 맛조개 등을 양식하는 모습



출처: 『로동신문』 2020.6.5.

4. 아무것도 없던 감탕에서 일궈낸 사업소

소설에서 간석지는 단순한 갯벌이 아니라, 사업소 재건의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이 부분은 동생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현갑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산물가공사업소 지배인으로 임명되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구체화된다. 당시 사업소는 기반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가내 수산반보다도 못한 처지였다. 가뜩이나 빈약한 토대에 태풍으로 많은 걸 잃은 상황이었다. “들 일 밀천”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만한 배”도 없어 속이 답답한 상황에서 현갑이 본 것은 “드넓은 간석지”였다.

북한 알기

내 눈엔 감탕밖에 안보입니다. 아마 여기 사람들이 다 잡아서 조개 한알 없을 겁니다. ... 조개양식을 하자는 겁니까? 아, 수산사업소에서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야지 쪼물쪼물하게 감탕판이나 두지겠습니까?

— 오광천, 단편소설 <존엄> 중에서(이하 출처 생략)

생산부원 광일은 조개양식에 부정적이었다. 현갑에게는 “현대적인 선단을 무어 물고기잡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차후 문제였고, ‘새끼조개’를 뿌려 갯벌에서 조개를 양식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설비와 자금, 노력이 모두 부족한 극한의 상황에서 간석지를 양식장으로 개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었다.

이후 사업소에서는 섭조개와 개량조개, 동조개 등을 양식했다. ‘조개양식’은 확실한 수익 모델이 되었고, 어선과 운반 차량 등도 마련하며 생산수단이 확보되었다. 과거의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나 사업소는 번듯한 부두, 종합청사, 수산물 가공장, 냉장고 등을 갖춘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단순히 생산 인프라만 구축한 게 아니었다. 종업원의 큰 고민이었던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활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5. 우물 안 개구리 자각과 세계 기술에 대한 욕망

현갑은 처음에는 바스레기 양식의 실패를 이겨낼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나 그의 “억척의 의지”는 맛조개 양식에 대한 도 무역관리국의 건의서를 받고 허물어졌다. 해외 기업의 높은 기술에 충격을 받고, ‘남에 대한 환상’이나 ‘금전 추구’라는 주변의 비난에도 무역관리국의 합영 건의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맛은 자연상태에서만 번식하고 서식할 수 있다던 기성 리론을 깨고 인공 번식과 양식을 성공시켜 맛조개 양식의 패권을 틀어쥐어 어느 한 외국회사의 경험과 그 리윤... 인정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현갑은 조개 양식에 대한 자기의 지식이 우물안의 개구리를 뛰어 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들은 바다가 양식의 패권을 다투며 계속 비약하는데 나는 손톱눈만한 성과에 자만도취되어 추세에 뒤떨어진 바스레기나 매만지며 허송세월하고 있다니?! 아니, 이대로 앉아 뭇갈 수는 없다. 우리도 날아야 한다.

북한 알기

현갑은 세계적 추세를 접하고 자신이 이룬 것이 ‘손톱눈만한 성과’였음을 깨닫고, 남들이 비약할 때 바스레기에 매달려 허송세월했다는 자책은 ‘날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 의식으로 이어졌다. 합영은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궁여지책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첨단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었던 셈이다.

6. 실리보다 북한 체제 위상을 우선하는 협상 스토리

외국 회사와 실무면담이 시작되자 저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와 달리, 현갑은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이사장의 거만한 태도에 맞서며 ‘주권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

우리에게 초극동시설과 건조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멸균설비들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설치만 하면 됩니다. 이 정도이면 국제적인 식품 안전규정과 품질지수에 부합되는 수산물가공제품들을 당신네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얼마든지 생산 보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는 비용 절감과 신선도를 핑계로 조개를 바다에서 직접 넘겨받으려 하지만, 현갑은 이를 단호히 거절한다. 그는 외국 회사의 원물공급 요구를 거절하고 가공제품 수출을 고수한다. 게다가 어떤 포장을 하든 생산지를 북한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이익 확보를 넘어, 사업소를 가공 중심 단위로 전환하고, 체제의 위상을 함께 드러내려는 협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바다처럼 깨끗한 연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리사장 선생도 제 눈으로 확인해 보셨겠지만 이런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 제품은 최상급일 것입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북한 알기

<그림 3> 어대진에서 수획한 수산물을 가공한 어랑군의 수산물가공공장



출처: *Foreign Trade of DPR Korea*, Foreign Trade Publishing House, 2026. no.1, p. 20.

북한의 청정한 자연환경은 전략적인 마케팅 요소로 활용된다. ‘깨끗한 바다’는 제품의 최상급 품질을 정당화하고, 외국 회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할 기회라고 역공을 펼친 것이다. 이러한 협상 과정은 동생이나 종업원들이 오해했던 실리 추구가 체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음을 증명한다. 현갑에게 이 거래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국의 기술과 자원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7. 수산물 수출에 반영된 북한의 기술 주권 전략

외국 회사와의 협상에서 보여준 현갑의 태도는 곧 북한의 관점을 대변한다. 경제적 실리보다 체제의 위상과 기술적 자립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북한 특유의 대외 무역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협상의 막바지에서 외국 회사는 새끼 조개를 계속 공급하며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씨 조개’를 들여와 직접 번식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된다. 이는 매번 새끼조개를 사 와야 하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직접 종자를 생산하는 자립적 양식 토대를 닦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세계 첨단 기술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들을 앞서겠다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각오가 함영의 배경인 셈이다. 소설은 조개양식과 무역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체제 위상을 세계에 떨치기 위한 과정임을 주제로 명시하고 있다. 물 한 모금, 조개 한 알에도 체제의 존엄이 실려 있다는 현갑의 말은 모든 생산 활동이 곧 체제의 품격과 직결된다는 고도의 애국주의적 함의를 가진다.

북한 알기

8. 소설에 반영된 북한의 바다가 양식의 비전

소설의 결말은 외국 기업가가 북한 사람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배짱에 감동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를 결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외국 회사의 이사장은 나라를 우선하고,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업소의 태도를 최고의 신용으로 평가한다. 소설은 청정 연해라는 자연적 자산과 인민의 애국심,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결합하여 양식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지배인 형제의 화해는 개인의 명예보다 체제의 융성을 앞세우는 과학자와 일꾼의 협력을 상징한다. 바스레기 양식의 실패를 딛고 맛조개양식 기술로 도약하려는 결의는 바다가 양식업의 목표가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북한 체제 존엄’의 실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풍경으로 제시된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



출처: 『로동신문』 2025.8.5.

<그림 5> 바다가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 신포에서 밥조개(가리비)를 수확하는 어민들



출처: 『로동신문』 2026.2.5.

북한 알기

계현갑 지배인의 성공과 실패, 기술 합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치의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 꾸준히 추진해 온 ‘황금해’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이는 어촌에서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제9차 당 대회 이후의 체제적 과제와도 연결된다. 당대회에서 북한은 바다를 낀 전국의 시, 군에 ‘바다가 양식기지 건설’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소설에서 원산지 표기를 ‘북한 체제 존엄’으로 연결하는 대목은 단순히 원산지 표시를 넘어선 정치적·경제적 함의를 담고 있다. 수출품은 북한의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이며, 자체 기술로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체제의 자부심과 자립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결국 이 소설은 바다가 양식, 그중에서도 조개양식을 통해 기술 자립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북한의 향후 과제를 드러내며,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바다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로 선정된 신포의 새 양식장 모습들



출처: 『로동신문』 2026.2.5.

북한 알기

나선 해양도시: 포기되지 않는 경계

강채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kchy163@korea.kr

1. 들어가며

나선시는 북한 최초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이자, 북·중·러가 맞닿아 있는 한반도 유일의 북방 해양도시이다. 해양도시의 이색적인 지리적 특성 때문인가? 나선시의 행정지명 또한 역동적으로 바뀌어왔다. 나진군·선봉군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설치되면서 나진·선봉시(1991.12)로, 그리고 나선직할시(2000.8), 나선시(2004.1), 나선특별시(2010.1)로 탈바꿈하면서 오늘의 나선시에 이른다.

그동안 나선시에 대한 기억은 주로 ‘정체된 경제특구’라는 낙관적 또는 비판적 평가 사이에서 진동해 왔다. 1991년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했을 때, 이 도시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찼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선시는 여전히 존재하고 부분적으로나마 기능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패의 도시인지 아니면 적응하는 도시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나선시는 최근 몇 년간 두 번의 위기를 맞았다. 첫째,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자본의 급격한 철수와 무역 대단절이 이뤄졌다. 이 기간에 나선시와 중국 길림성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실질적으로 봉쇄되었고, 투자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이동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둘째, 2023년 이후로는 북러 밀착이 심화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북한 정부는 중국인 사업자들을 위해 입국 문호를 다시 열었다.

북한의 해양도시 나선시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층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지리·해양학적 층위로, 두만강 하구에서 동해로 연결되는 이 지역의 자연 조건이다. 둘째, 경제·산업 층위로, 항만, 수산, 관광, 해운 등 해양도시로서의 기능이다. 셋째, 지정학·국제정치 층위로, 북·중·러 이

북한 알기

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이 세 층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선시가 왜 실패한 경제특구이면서도 버틸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거점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2. 나선시 해양자원의 어제와 오늘

1) 해양 생태계의 특징과 변화

나선시는 북한의 동쪽 끝에서 북·중·러가 만나는 지점이다. 서쪽으로는 청진시와 은덕군, 북쪽으로는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훈춘시(琿春)가 있다. 동쪽으로는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 프리모리예 지방(Primorsky Krai)이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동해와 직접 접한다. 한마디로 이 위치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중국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의 내륙 자원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자원이 해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나선은 필수적인 환적(Transshipment) 지점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두만강은 이 지역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다. 길이 약 520km의 두만강은 백두산 동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나선 지역에서 동해로 흘러든다. 특히 두만강 하구에서 약 15km 지점까지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계 수역이 되며, 이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 물류 회랑(Corridor)의 핵심 위치다.

나선시를 마주하고 있는 동해 해역은 여러 독특한 해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수심과 선박 접안조건이 매우 뛰어나다. 동해는 평균 수심 약 1,600m의 심해(深海) 지역이다. 특히 나선 인근 해역의 수심은 150~300m로 한반도 서해(평균 50m 미만)에 비해 훨씬 깊다.¹⁾ 동해안의 이러한 물리적 조건은 서해안의 얕은 수심, 큰 조수간만, 진흙질 해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다음으로, 복잡한 해류 체계를 갖고 있어 북한의 동해 수산업 특성을 규정한다. 동해의 해류는 북쪽의 차가운 북한 한류와 남쪽의 따뜻한 ‘대마 난류(쓰시마 난류의 일부)’가 만나는 지역에서 형성된다. 나선 인근은 이 두 해류의 영향을 모두 받는 해류 전선 지역이다. 겨울에는 북한 한류의 남하로 수온이 -1°C까지 떨어지고, 여름에는 난류의 영향으로 수온이 20°C 이상 올라간다. 이러한 급격한 수온 변화는 어족 자원의 산란, 이동, 성장을 직접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동해 수산업의 특성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고염분과 높은 영양염류의 영향이다. 동해의 표층

북한 알기

염분은 약 33.9-34.3‰(퍼밀)로 한반도 서해(31~33.2‰) 보다 높다. 또한 동해 북부에서는 겨울철 강한 바람으로 인한 ‘용승’ 현상이 일어나, 심층의 차갑고 영양이 많은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온다. 이는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하며 그 결과,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오징어, 갈치, 명태 등)이 산란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해양학적 조건은 나선 지역이 풍요로운 어장이 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동해의 수산자원은 과거 50년간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나선 인근 해역이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1970~80년대 동해의 주요 수산자원이었던 명태의 주요 산란 및 성장지는 나선시였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 지역의 명태는 외화벌이에 특화된 어종이 됐다. 여기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소위 ‘싸쓸이 조업’),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거 50년간 동해 수온은 평균 1.5~2°C 상승), 그리고 냉수성 어종인 명태의 서식 환경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²⁾ 나선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오징어가 동해의 주요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한때 나선 인근 해역은 오징어의 품어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 오징어 자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명태와 오징어 외에도 대게, 갈치, 멸치, 도루묵 등 다양한 어종이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특히 대게는 높은 시장 가격으로 인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자원도 절정기에 비해 대폭 감소한 상태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나선 지역의 중국-북한 합작 가공 공장 중 약 90%가 폐쇄되거나 운영 휴업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서도³⁾ 일부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나선시 수산 산업은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주로 ‘동해 자원의 직접 조업 → 나선시 가공 → 수출’을 선호했다면, 현재는 ‘중국 길림성에서 반제품 수입 → 나선시 최종 가공·포장 → 재수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일종의 후퇴로 볼 수 있지만,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현실 주의적 선택이다. 동해의 자원 고갈과 조업의 어려움(기후, 제재, 국제법) 속에서, 수입 원료를 활용한 가공산업으로의 전환은 최소한의 고용과 외화 수입을 유지하는 방식인 것이다.

북한 알기

2) 항만 기능과 현실적 재편

나진항은 북한 동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만이다. 항만의 위치는 나선시 중심부에서 약 15km 남쪽, 동해에 직접 접해 있으며 두만강 하구의 물길이 해역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 이러한 나진항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항만 조건이 매우 양호하다. 우선, 항만 입구는 11~15m, 선석 전면은 8~10m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어, 8,000~10,000톤급 일반 화물선의 접안을 충분히 지원한다. 다만 20,000톤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만조시에만 입항 가능하다. 또한 선석 구성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세 개 부두와 다수의 선석이 있는데, 특히 1호 부두(중국 투자), 2호 부두(무역 전용), 3호 부두(러시아 투자)로 각각 그 역할이 분화되어 있다. 화물 처리 능력에 있어서도, 설계된 연간 하역 능력은 300만 톤으로, 이는 1991년 당시 중국 동북 3성의 주요 항만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일반적으로 동해안의 강한 파도(겨울철 3~5m)로 항만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나진항은 천연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반도와 섬들로 보호받아 청진, 원산 등 다른 동해 항만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나진항만 이용은 과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30~50만 톤 수준으로 언급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대북제재의 장기화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기술 부족, 유지보수 부실, 물류 연결성의 약화 등의 요인들로 해석된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심화되면서 국제 해운사들은 북한 항만 이용을 회피해왔다. 또한 지난 30년간 나진항에는 이렇다 할 기술 투자나 기술 업그레이드 동향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항만 운영 기술이나 하역 장비, 화물 추적 시스템 등과 같은 현대적 기준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부실이나 제재로 인한 외화 부족, 자본 투자 미흡 등으로 인해 항만 시설의 부식이나 장비 고장, 인프라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물류 연결성이 낮은 것도 원인이다. 나진항과 중국 내륙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효율성이나 다롄, 칭다오 등 중국의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인프라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진항은 다시 한번 역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2025년 현재,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극동 지역의

북한 알기

에너지 및 광물 수출이 새로운 루트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⁴⁾ 두만강 철도(표준궤와 광궤의 이중 궤도로 중국과 러시아 모두 연결)와 도로는 중국의 길림성 훈춘과 나진항을 직접 연결한다. 이는 러시아 극동에서 나오는 석탄, 철광석, 곡물 등이 나진항을 거쳐 중국으로 환적되는 물류 효과를 낳는데, 이러한 물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24년 나진항의 물동량은 약 50~8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과거의 대규모 물류 허브라는 꿈과 거리는 있지만, 일부 화물의 환적 거점이라는 현실적 역할과 변환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진항 역할이 중국 중심에서 러시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나진항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러시아와 함께 각각 50년 개발권 및 사용권을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태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신규 투자는 축소된 상태다.

3. 지정학적 재편과 불안정한 균형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속에서 나선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재평가했다. 나진항에서 시작된 물류가 중국 내륙으로 연결되고, 러시아 극동으로 확장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2024년 이후로 일부 북한에 대한 기술 협력을 축소하거나 비공식적 제재를 가했다는 보도가 제기되기도 했다.⁵⁾ 동시에 중국의 나선시 투자 우선순위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현재 나선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과거의 대규모 신규 투자는 보류하면서 기존 시설과 관계는 최소한 유지하고, 미래의 기회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이유는 몇 가지로 거론된다. 첫째, 나선의 지리적 비효율성에 대한 회의감이다. 나선에서 중국 내륙으로 돌아가려면 길림성 훈춘을 거쳐야 하는데, 이 루트의 효율성이 다롄, 칭다오 등 중국의 주요 항구 루트보다 낮은 편이다. 둘째, 러시아 의존도 증가의 불확실성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부가 불확실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가 과연 나선을 통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셋째, 북러 관계의 강화에 대한 우려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너무 경도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나선에 대한 투자 축소나 전략적 거리두기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북한 알기

이에 비해 러시아는 전략적 우회로서의 나선시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⁶⁾ 즉 러우 전쟁 이후로 서방의 제재에 따른 대안 물류 루트로 나선시가 주목된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미국과 유엔의 감시 대상이 되면서 나선-자루비노(Zarubino) 회랑은 러시아 극동의 에너지 수출, 특히 석탄과 석유를 대체 루트로 운송하는 수단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나선시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미 충분한 해항(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기존 인프라(나진항 3호 부두 50년 사용권)의 효율적 사용과 운영상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나선시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사는 에너지 물류의 안정화(대체 물류 루트), 북한의 군사적 지원, 중국과의 이중 게임 등에 있다. 한편, 2024년부터 러시아는 나선시에 대한 관광협력을 허용하면서 북·러 관광협력은 작은 부활을 시작했다. 2024년에는 러시아 관광객 881명이 나선시를 방문했으며, 2025년 1월부터 북한이 공식적으로 나선시 관광을 재개하면서, 2025년 상반기에만 러시아 관광객이 전년 대비 60%를 넘어섰다.⁷⁾ 이런 수순이라면, 연간 2,000~3,000명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 나선시는 정치적 외교의 도구이자 북한 특구 정책의 상징이다. 그래서 더더욱 나선 특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 나선시는 중러 사이에서 신호 송신 역할을 한다. 나선 지역의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는 ‘여전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러시아에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한적 외화 창출 지역으로서의 나선시 역할이다. 항만 통행료, 임대료, 관광 수입 등을 통한 최소한의 외화 수입원이다.

따라서 현재 나선시에서 북중러 삼각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는 나선에서 경쟁한다. 즉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가 이슈다. 중국은 투자 축소로 러시아에 영향력을 양보하고 있고, 러시아는 기존 시설 사용으로 영향력을 유지한다. 둘째, 북한은 이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2025년 11월 중국인 입국 개방은 이 균형 유지의 한 표현이다. 중국의 투자가 완전히 떠나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셋째, 북·중·러 모두 최소한의 합의에 동의한다. 즉 나선 지역의 기본적 안정, 기존 활동의 지속, 그 이상의 적극적 협력이나 통합은 미미한 상태다.

북한 알기

4. 나선시 남북해양협력은 기회인가? 희망인가?

나선시에 대한 북한의 미래 설계는 무엇일까? 그 전략적 목표와 방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과거의 사례가 있다. 이미 북한은 1993년 5월 ‘나진-선봉지대 국토 건설 총계획’을 통해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의 중점 목표를 총 3단계로 설계한 바 있다. 1단계(1993~1995년)는 국제 화물 중계를 위한 인프라 정비, 2단계(1996~2000년)는 인프라 건설 확대 및 수출 주도형 가공산업의 육성, 3단계(2001년~2010년)는 종합적인 국제 교류 거점도시 건설이다. 하지만 1단계 만료 시점까지도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자, 개발 전략을 다시 2단계로 수정하게 된다. 이때 수정된 계획은 1단계(1996년~2000년)로 기존의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정비를 통한 국제 화물 중계 토대 마련, 2단계(2001년~2010년)로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및 금융의 국제 교류 거점도시 건설이다.⁸⁾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목표는 달성된 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속에서 나선시에 대한 남북협력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에 들어 최초로 남·북·러 3국이 참여하는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막혀 단 2회(1차: 2014년 11월, 2차: 2015년 4월)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 상황에서 직접적인 남북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 제재, 미국의 압박, 남북 관계의 경색 상태가 이를 막는다. 그러나 기회는, 희망은 아직 현존한다. 바로 나선시에 대한 비정치적 협력, 혹은 비직접적 협력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해양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해양 환경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해양 과학연구 등에서 비교적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예컨대, 태풍 예측, 해수 온도, 해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국제기구(UN-ESCAP, WMO)를 통해 교환하는 방식의 해양 정보 교환이다. 또한 동해는 공동의 환경이다. 북한 측의 오염 발생원(산업 시설, 폐수 처리장 등)과 우리의 오염 발생원이 모두 이 해역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국, 일본과 함께 동해의 수질, 오염도, 해양 생태 지표 생물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해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냉수성 어종(명태)의 인공 종자 방류, 보호 구역 설정, 과도한 어획 제한 등은 정치의 논리를 초월한 ‘자연 보존의 논리’

속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나선시가 가진 심해 항만 조건, 전략적 지리적 위치, 풍부한 해양 생물자원, 그리고 해양 관광 자원 등은 장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점에서 나선시 이해는 지정학적 문제 이전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동해의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파트너’로서의 위치다. 이는 정치나 군사를 초월한 작은 협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그것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다.

- 1) “북한 이해(항만),”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검색일: 2026.2.22.).
- 2) 김하영, “동해 해양질서의 특징과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 『한국정치연구』 제22권 2호(2013), pp. 101-124 참조.
- 3) “중국 비즈니스맨 어서 오세요! 라선지구 입국 장려 ‘1년 전에는 중국 관련 공장 90%가 처참하게 폐쇄됐었는데…’ 무역과 투자 확대 노리지만 저조,” 『아시아프레스』 2026.1.30.
- 4) “러, 북한 나진항 통한 석탄 운송 재개…중국에 수출,” 『연합뉴스』, 2024.7.9.; “北나진항서 러시아산 석탄 대규모 中 수출…北석탄 섞어 밀수출 가능성,” 『서울평양뉴스』, 2025.3.15.
- 5) Seohyun Lee and Michael Donmoyer, “How China-North Korea relations frayed in 2024, and what it means for Trump's Korea policy,” 『UPI』 2024.12.17.; 최장호 외, 『북합위기 이후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 연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p. 208.
- 6) “북한의 관점에서 본 푸틴의 극동 명령, 새로운 지정학의 탄생,” 『자주시보』, 2025.11.5.
- 7) ““관광 목적” 방북 러시아인 작년에 881명 불과,” 『연합뉴스』, 2025.2.8.; “러, 2025년 상반기 북한 관광객 60% 증가,” 『서울평양뉴스』, 2025.9.4.
- 8) 강채연, 『북한 도시 이해』, (서울: 바른북스, 2024), p. 159.

북한 소식
(1~3월)

북한 해양·수산 기사 (2026년 1월~3월)

진희권(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hkjin77@gmail.com

<2026년 1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민주조선	1월 8일	서해안의 수산사업소들에서 첫 출어준비로 들끓는다	- 서해안 수산사업소들 봄철 물고기잡이 준비 - 평안남도 ‘문덕태향산수산사업소’는 12월 중순까지 어구 준비 완료하고 어선 수리 주력 - 평안북도의 ‘운전수산사업소’, ‘정주수산사업소’도 어선과 어구준비에 박차
로동신문	1월 9일	방조제공사 힘있게 진척-간석지건설장들에서	- 황해남도 웅진군 ‘대동만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 공사 진행 중 - 평안북도 광산군 ‘광산간석지’ 3단계 2구역 공사 진행 중
조선중앙통신	1월 11일	서해지구 수산단위들에서 다시마모내기예 력량을 집중	- 황해남도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다시마 모내기예 주력
로동신문	1월 11일	활주로식 양어	- ‘활주로식양어’는 저수지나 못에 새끼물고기를 넣어 기르는 전통적 양식 방법과 달리 일정한 구역에 바닥과 양쪽 면이 막힌 물길 모양의 양어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물고기를 기르는 집약적 양어방법. 못에 있는 양어우리가 활주로처럼 보인다고 하여 ‘활주로식 양어’라고 함 - 양어 우리의 한쪽 끝에는 물순환 및 산소공급 설비, 반대쪽에는 오물 배출 설비 설치. 물순환 및 산소공급 설비에 의해 양어 우리 안에서는 물이 한쪽으로 흐르면서 산소가 보충되며, 반대쪽에서는 물고기배설물과 먹이 찌꺼기 등 오염 물질이 오물 배출 설비에 의하여 배출. 활주로식 양어장은 물고기를 넣어 기르는 양어 우리와 물순환 및 산소공급 계통, 오물 배출 계통으로 구성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못에서 양어 우리가 차지하는 면적은 5% 정도이며, 양어 우리 한 개의 길이는 보통 25~30m, 너비는 5m, 길이는 2~3m이며 양어 우리의 수는 못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개로 늘일 수 있음 - 전통적 양어방법에 비해 ‘활주로식 양어’는 높은 밀도로 물 고기를 기를 수 있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배 정도 증대
로동신문	1월 12일	다시마모내기에 일제히 진입-황해남도수산관리국에서	-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 등 ‘황해남도수산관리국’ 산하 양식 단위에서 다시마 모내기 일제히 시작
로동신문	1월 12일	금산포젓갈가공공장에서는 근 10년간 자연에너지발전소운동을 잘하여 그 덕을 크게 보고 있다	- 황해남도 은률군의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태양 빛과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 큰 덕을 보고 있음 - 11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1만 개 이상의 ‘태양빛 전지판’과 풍력발전기를 설치
로동신문	1월 13일	원산어구종합공장 준공식 진행	- 1월 12일, 강원도 원산시에서 ‘원산어구종합공장’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1월 15일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건설 완공, 준공식 진행	- 1월 14일, 평안북도에서 ‘애도간석지’ 1구역 준공식 진행 - 공사의 성과로 평안북도 정주시 신봉리와 애도동, 일해리를 연결한 방조제가 윤환선 도로를 형성하고 수천 정보의 새 땅 마련
로동신문	1월 17일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준공식 진행	- 1월 16일, 함경북도에서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1월 20일	웅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	- 1월 19일, 황해남도에서 ‘웅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1월 23일	당과 정부 지도간부들의 참가밑에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 진행	- 1월 21일, 함경북도에서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 진행 - ‘염분진해안공원지구’에 수 백 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해 종합적 봉사 시설이 꾸려진 ‘염분진해양려관’과 해수욕장 등을 건설
로동신문	1월 23일	락원군,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들 사이의 사회주의경쟁선포 모임 진행	- 1월 22일, 바다가양식의 활성화를 위해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간 사회주의경쟁 선포 모임 진행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1월 24일	한천수산사업소에 첫갈가공장 새로 건설	- 1월 23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한천수산사업소 첫갈가공장’ 준공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1월 27일	황해남도에서 논판양어기술전습회 진행	- 황해남도 ‘배천메기공장’에서 기술전습회를 열고 종자물고 기관리와 새끼물고기 생산 등에서 나서는 여러 문제를 강습
로동신문	1월 27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우량품종의 밥조개를 매일 수십씩 거두어 들고 있다	-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연일 우량품종의 밥조개를 수확
내나라	1월 29일	메기생산을 늘인다	- ‘평양메기공장’은 인근 ‘동평양화력발전소’의 퇴수를 이용하여 메기를 생산 - ‘평양메기공장’은 새로운 물 재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물 소비량을 줄이고 메기의 사양 관리를 과학화해 폐사율을 낮추고 생산량 증대
로동신문	1월 30일	논판양어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 평양시는 논판양어 적지로 선정된 포전들의 논 개조사업 추진 - 평안남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먹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생산 토대구축 - 황해북도에서는 도내 대학교원들과 양어부문 기술자들의 도움 속에 유기농법 도입을 위한 기술적 문제 파악 - 북부 산간지대에서는 논판양어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과 실무강습 조직
조선중앙통신	1월 31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밥조개수확 한창	-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우량품종의 밥조개를 매일 수십 톤씩 수확

<2026년 2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민주조선	2월 2일	풍년의 기쁨 안고 첫물다시마, 김 수확	- ‘황해남도수산물관리국’ 산하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1월 14일부터 매일 백수십 톤의 다시마와 김 수확
조선중앙통신	2월 2일	습지보호를 위한 과학연구활동 적극화	- 2월 2일은 세계습지의 날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는 동아시아-오세안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중심에 위치한 동서해 연안과 내륙에 습지가 발달하여있는 자연 지리적 조건에 맞게 철새(습지)보호구들과 철새들의 분포상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 심화 -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는 철새(습지)보호구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10여 개의 습지에서 철새의 분포상태와 보호 가치를 밝히고 보호구 후보지로 선정 - 해마다 1월과 2월에 철새와 습지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해 전 지구적 물새 조사사업에 기여하고 있음
로동신문	2월 7일	대동강에 현대적인 봉사선을 띄웠다 - 남포시에서	- 남포시에서 수 백 명의 수용 능력을 갖춘 현대적 봉사선 ‘와우봉’호를 건조해 대동강에 배치
로동신문	2월 11일	대동만간석지 2구역 1차물막이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 황해남도 웅진군 ‘대동만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로동신문	2월 12일	논판양어준비에 큰 힘을 - 함경북도에서	- 함경북도에서 올해 논판양어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 - 온성군에서는 논판양어 적지로 선정된 포전에 물고기 다님길과 웅덩이를 조성하는 등 준비 - 화대군에서는 어분 사료 보장과 ‘동물성단백먹이’ 등 비알곡 먹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토대 구축
로동신문	2월 14일	겨울철배수리 결속 - 남포수산사업소에서	- ‘남포수산사업소’에서 올해 물고기잡이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배수리기일 목표를 앞당겨 결속
조선중앙통신	2월 20일	각지 수산단위들에서 생산성과 확대	- 황해남도 ‘구미포수산사업소’에서는 앞선 다시마양식 기술을 도입하고, 비배관리를 과학화해 생산량 증대 - 강원도 ‘송도원수산사업소’, ‘고성바다가양식사업소’, ‘통천수산사업소’에서도 섭조개 등 양식 생산량 증대

<2026년 3월>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3월 1일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준공후 수백t의 만밥조개와 미역 수확	- 바다가양식을 활성화하여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는 사업소 일꾼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준공 후 수백t의 ‘만밥조개’와 미역을 수확
로동신문	3월 5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취역을 앞두고 진행중인 함의 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공정을 료해하시였다	- 3월 3일과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축함 <최현> 호를 방문해 ‘함선구분대’의 전투정치 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 공정을 요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의 기동성이 작전 운용상 요구에 만족되고 함선 조종체계가 훌륭히 구축되었다고 높이 평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 해상방위력의 새로운 상징으로 되는 신형구축함의 작전운용평가시험들이 계획한 바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 3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현>함에 설치된 해상대 지상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시험은 함의 작전능력평가의 핵심 요소며, 발사 성공에 만족을 표시 -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최현>급 구축함 3호의 건조 상황을 요해
로동신문	3월 9일	일본의 범죄적인 바다환경오염책동	- 지난 3월 6일, 일본 ‘도쿄전력회사’가 2025회계년도의 7번째 핵 오염수를 방류했다고 규탄
조선중앙통신	3월 9일	평안남도의 수산사업소들에서 고기배들 출항	- 평안남도의 ‘한천수산사업소’, ‘평원수산사업소’, ‘문덕태향수산사업소’, ‘문덕수산사업소’, ‘가마포수산사업소’ 등에서 어로준비를 마치고 3월 7~8일, 서해의 어장으로 진출
로동신문	3월 10일	논판양어준비를 빈틈없이	- 남포시에서 수심 정보의 논을 개조하고 새끼물고기 생산, 먹이 보장 준비를 완료해 논판양어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3월 11일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 진행	- 3월 10일,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최현> 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상 방식으로 참관 - 구축함 <최현> 호에 타격목표 제원들이 전송되고 발사가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 수 개의 표적들에 동시에 전략순항미사일 발사가 진행 - 발사된 순항미사일들은 1만 111s부터 1만 138s간 조선 서해상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개별 섬 목표들을 타격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 믿음 성과 <최현>함의 통합전투체계 우월성이 확증되었다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으로 건조하는 구축함의 함선무장체계 구성을 군사적 측면에서 현실적 요구와 발전적 견지에서 우리 식으로 다시 심의해 볼 것을 지시. 또한, ‘함상자동포’는 3,000t급 이하의 고속기동형 함선들에 장비하고 5,000t급과 8,000t급 구축함에는 ‘함상자동포’ 대신 초음속 무기체계를 추가로 배치하여 함선의 자동운용상 특성에 맞게 함대함 및 전략적 공격능력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언급
로동신문	3월 13일	논판양어기술경험발표회 및 연구토론회 진행	- 3월 12일,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농산기술협회’와 ‘조선수산협회’ 공동주최로 ‘논판양어기술경험발표회 및 연구토론회’가 농업과학원에서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 - 이번 경험발표회와 연구토론회는 ‘논벼와 물고기생산성 제고’라는 주제로 녹색재배 및 양어생산 종합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보급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과학기술적 방법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
로동신문	3월 14일	수산물가공기지가 새로 건설된다	- 함경남도 신포시에 ‘수산물가공사업소’ 새로 건설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3월 2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 해당 보도 중 해양수산 관련 내용 발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산부문에서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많이 무어내고 물고기잡이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며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 생산을 늘여야 할것”이라고 언급
로동신문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 해당 보도 중 해양수산 관련 내용 발췌 - “주요공업부문에서 2020년에 비하여 주체철은 3.2배, 질소비료는 1.5배, 유색금속은 1.9배, 세멘트는 1.4배, 수산물은 1.9배로 장성” - 보고자는 “육해운부문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며 화물자동차에 의한 수송능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부문에서 수산물생산목표를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언급
내나라	3월 25일	흐뭇한 밥조개 작황	- 함경남도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는 매일 수십톤의 밥조개를 수확
로동신문	3월 29일	리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 힘있게 추진 - 함경남도에서	- 함경남도에서 ‘리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진행 중 - 착공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부두 굴착공사 대부분 수행, 백수십 세대의 살림집과 사업소 공공건물 건설을 위한 기초굴착을 완료하고 ‘기초 콘크리트 치기’도 결속
로동신문	3월 30일	양식장들에 혁신의 숨결 드높다-서해의 바다가양식단위들에서	- 황해남도 ‘구미포수산사업소’는 3월 28일 현재 월생산계획을 180% 완수 - 황해남도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와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도 생산성과 확대

북한 소식 (1~3월)

NK 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정다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dhj82@kmi.re.kr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25년 12월 24일	Lee orders crackdown on Chinese fishing boats in ROK waters, including near NLL	-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집행 강화 및 무관용 원칙(벌금·경제적 제재 강화 포함)을 지시. 이는 게철(꽃게철)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한다는 보도 이후 나온 조치임 - 한국 해경은 9~10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하루 평균 약 190척의 중국 어선을 탐지했으며, 소청도 인근에서 2척 나포, 400척 이상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음. 일부 어선은 철조망 설치, 악천후 시 여러 척을 묶은 밧줄로 묶는 '연결 대형'을 활용해 도주 시간을 벌며 불법조업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짐 - 한국은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진입 가능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과의 일정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평가. 과거 유엔 조사에서도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외국 선박의 북한 수역 조업을 통한 수익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 - 한편, 한국과 중국은 지난 8월 NLL 인근을 포함한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순찰, 정보 공유 확대, 처벌 강화 등 어업 단속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26년 1월 9일	US says seizure of tankers linked to Venezuela sends a warning to North Korea	-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계 유조선 2척을 압류한 조치가 북한·러시아·이란 등 제재 회피 시도 주체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미 정부는 러시아 선박 'Marinera'가 '가짜 국기(false flag)'를 내걸고 무국적 선박처럼 위장운항하며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함. 러시아 측은 선박이 적법 등록됐다고 반박함 - 2021년에도 미국은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약 150만 달러(약 22억 7,500만원) 상당의 유류를 북한 선박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유조선을 압류한 바 있음 - NK Pro는 MarineTraffic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에도 해상 밀수(연료 확보 등)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최소 5척의 북한 관련 유조선이 중국 수역에 진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함 (이 중 4척은 유엔 제재 대상, 1척은 유류 밀수 선박으로 알려짐)
'26년 1월 16일	What to make of reports that Russia tried to ship a nuke reactor to North Korea	- La Verdad(스페인 일간지)는 2024년 12월 23일 스페인 남동부 해상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 Ursa Major호가 러시아 VM-4SG 원자로 2기 관련 부품(냉각·증기 배관 구성품 및 덮개 등)을 싣고 있었으며, 목적지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북한 나선행이었다고(북한 핵잠수함 개발용 부품 인도 목적) 익명 수사관 진술을 인용해 보도함 - NK News는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으나, La Verdad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북한행 원자로 부품 운송'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함 - 오픈소스 분석가 Oliver Alexander는 (포르투갈 국방부 공개 사진 등을 근거로) Ursa Major 적재물이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용 크레인과 러시아 Project 10510 핵추진 쇄빙선 관련 해치 커버로 보이며, 북한행·VM-4SG 원자로 부품을 시사하는 공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 북한 군사 분야 전문가 Joost Oliemans도 La Verdad의 원자로 부품·초공동(supercavitating) 어뢰 주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해당 보도는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함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26년 1월 30일	North Korean arms trade with Russia appears to chill down in January	- NK Pro는 위성영상(Planet Labs) 분석을 근거로, 2026년 1월 들어 나선히에서 의심되는 군수품 관련 컨테이너 선적 활동이 둔화됐으며, 러시아측 선박의 컨테이너 반출은 단 1회만 확인됨 -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1월 14일 의심 선박 1척이 나선히에 접안했으며, 해당 선박은 전날(1월 13일) 인접 부두에 '빈 컨테이너'로 알려진 화물을 하역한 뒤 이동한 정황이 관측됨 - NK Pro는 해당 의심 선박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 Angara 또는 Lady R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입항은 12월 21일 이후 첫 입항으로 언급됨. 또한 12월 27~31일 부두에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기 시작해 약 2주 뒤 다음 선박 입항을 앞둔 정황으로 설명함 - 덧붙여, 러시아 선박이 10~12월에는 나선히 방문이 월 최소 3회였던 반면 1월에는 1회로 감소했음. 이는 러시아의 한파·결빙 등 기상(물류) 여건이 둔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함
'26년 2월 18일	Cargo ship appears at North Korean nuclear submarine site for first time	- NK Pro는 위성영상(Planet Labs·Maxar) 분석을 근거로, 북한 신포(Sinpho) '봉대 잠수함 공장(Pongdae Submarine Factory)'의 핵추진 미사일 잠수함 건조동의 전면 슬립웨이에 대형 화물선이 처음으로 접안한 정황이 관측됐다고 보도함 - 길이 약 98~100m, 폭 약 16m로 추정되는 벌크 화물선 1척이 2월 13~14일 사이 공장 앞 해역에 도착했으며, 해당 시점·장소에서 선박식별장치(AIS)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음 - 2월 15일·18일 Maxar 고해상도 영상에서 해당 선박이 핵잠수함 건조동 정면 슬립웨이에 접안한 모습이 확인됨 - NK Pro는 2021년 1월(제8차 당대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핵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2021년 1월 사업이 공개된 이후 거의 매일 축적된 Planet Labs 영상에서 해당 지점의 화물선 접안 사례가 처음 관측됐다고 설명함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또한 2월 2~3일 사이 길이 약 100m로 추정되는 또 다른 대형 선박이 인근에 도착해 2월 18일 기준 공장 북측 부두 밖 해상에 정박한 모습이 관측됐으며, 인접 건물 전면에는 수직으로 설치된 붉은 현수막이 관측되나, 진수식 등 임박 신호로 단정되진 않으며 단순 선전 문구일 가능성도 언급함
'26년 2월 20일	North Korean ships appear to conduct 'odd' fuel transfer in waters off Japan	- Marine Traffic 선박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천마산(Chon Ma San, IMO 8660313)'이 2월 3일 오전 9시(한국시간) 일본 서부 도고지마 동쪽 약 20마일 해상에서 북한 벌크선 '모란봉2(Mo Ran Bong 2, IMO 8357112)'와 선박 간 환적을 한 정황이 관측됨 - 두 선박은 일본 영해에는 진입하지 않았으나 일본 EEZ를 통과했으며, 당시 해역에 일본 해상보안청(JCG) 선박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본 당국도 관련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함 - 전문가들은 해당 환적이 일본 인근 감시가 예상되는 해역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위원 Neil Watts는 기계 고장 등 긴급 상황 대응 가능성을, Katsu Furukawa도 연료 부족 등 비상 사유 가능성을 언급함 - NK Pro는 일본이 EEZ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압류한 최근 사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으며, Furukawa는 차이가 EEZ 내 자원(어업) 침해 여부 및 일본의 '최소 개입(minimalist)' 접근과 연관될 수 있다고 설명함 - Chon Ma San은 2018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자산 동결·입항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관련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음 - NK Pro는 Chon Ma San이 최근 1년간 중국 동남 연안·대만 해협 등에서 활동한 정황과 2024년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에서 유류를 확보한 정황을 언급함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Mo Ran Bong 2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북한이 불법 편입한 선박으로 제재 모니터링 대상에 올라 있었다고 전함
'26년 3월 12일	Iran oil shock threatens North Korea from its fuel pumps to black markets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유가가 급등했으며,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브렌트유가 한때 배럴 당 약 120달러에 근접했다고 전함 - 북한의 연료 조달은 유엔 제재 하 정제유 연 50만 배럴 허용분과 함께, 해상 선박 간 환적, 중국 단둥(丹東) 경유 송유관, 북서부 봉화화학공장(Ponghwa Chemical Complex) 가동 등 복합 경로에 의존하며, 이 중 일부가 이란산 원유/호르무즈 경유 물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전문가들은 중국 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북한의 연료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 가격 변동이 북한 장마당 등 국내 시장에 전가되기까지 1~2주 가량 시차를 보임. 이후 지역 간 운송비 상승이 물가·유통 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함 - 아울러 연료비 상승이 지역 간 물자 이동과 공장·건설현장 자체 조달에 차질을 주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일부 생산시설은 가동 축소·중단 압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함 -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어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제재 리스크를 부담하는 공급자들이 북한에 판매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함 - 특히 중국이 단둥 송유관 공급을 축소·중단할 경우 북한 연료 가격에 즉각적·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러시아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임
'26년 3월 20일	North Korea asks Russia to provide thousands of tons of oil and gas	-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 수출지원센터는 북한 총영사관 무역·경제 부서를 대신해 연료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히며, 북한이 러시아 기업에 원유·석유제품을 매월 수천 톤 규모의 공급을 원한다고 전달함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센터 공지에 따르면, 북한 측 요청 물량은 월 휘발유(AI-92) 1,000톤, 경유 1,000톤, 원유 6,000톤 등이며, 비료·석유화학 제품인 요소(urea) 500톤/월도 함께 요청함 - 센터는 참여 의향 기업에 대해 북한 측과의 ‘직접 접촉(direct contacts)’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함. 이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3주 전)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거론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과 맞물림 - “관계자”로부터 지난주 기준 북한 내 연료 가격 상승은 없었다고 전하는 한편, DailyNK 보도를 인용해 이란 상황으로 한때 최대 25%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안정되었다고 밝힘 - 북한이 유엔 제재하에서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 상한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에 요청한 물량이 유엔 상한에 근접한 규모는 아니지만, 러시아가 이를 공개적으로 중개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함